

화학 · 소재, 유해물질 분석방법 교육

기술표준원, 중금속 함유량 분석교육 실시 ... 유럽 환경규제 본격 대응

EU 지역에서 자동차, 전기·전자제품에 유해물질 사용을 전면금지하는 환경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제품의 중금속 분석방법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윤교원)은 EU의 폐차처리지침(ELV)과 전기·가전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이 제정되면서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등 4개 중금속이 사용된 제품은 EU 시장에서의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유해물질 함유량을 파악하고 대체물질 개발을 위한 분석기술을 갖추게 하고자 9월21일부터 11월 초까지 교육을 통해 관련기업의 분석능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 분야는 자동차, 전기·가전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금속, 고분자소재, 복합소재, 세라믹, 표면처리 관련 부품·소재 등 약 30여 품목으로, ISO 국제표준규격과 기술표준원에서 새로 개발해 ISO에 신규 제안한 분석방법 등 50여개 규격에 대해 최첨단 분석장비를 동원한 분석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는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시스템을 조기 구축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내산업에 미치는 무역저해 효과를 해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유해물질 분석교육 일정

교육일자	교육내용	
	분류	세부내용
1차 교육 9월21일-9월23일	금속제품	- 철강 제품, 구리 및 구리합금, 알루미늄 및 그합금, 마그네슘 및 합금, 초경합금 등 기타 금속재료
2차 교육 10월5일-10월7일	고분자제품	- 플라스틱, 접착제, 피혁, 고무제품, 윤활제
3차 교육 10월19일-10월21일	세라믹제품	- 유리제품(전구 및 창유리 등), 기능성세라믹(알루미나, PZT 등), 자성체(페라이트 등), 전자재료(저항체, 티탄산바륨 등)
4차 교육 11월2일-11월4일	복합소재	- 도금제품의 6가크롬 및 XRF법, 전자부품류, 자동차용 마찰재, 금속 및 유기성재료 혼합제품, 코팅 부품류

교육신청은 기술표준원 웹사이트(www.ats.go.kr)나 전화(02-509-7261)로 가능하다.

<화학저널 2004/09/13>